

# 호가 뛰고 매물 실종... 서울 집값 하락에도 “급할 것 없다”

## GTX 노선 따라가보니

### 서울역

교통호재에 매매호가만 올라  
급매물 사라지고 거래절벽  
서울역센트럴자이 ‘신고가’

정부가 지난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이 추진되면서 주요 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GTX 역을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는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파주 운정, 동탄, 평택 등 외곽 지역에서 호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GTX-A 노선 연장 발표 이후 집주인이 매매 호가를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4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난 2017년 8월 입주를 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 모습.



서울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서울역센트럴자이’.

작했다. 만리2구역에 재개발해 지은 아파트다. 14개동, 전용면적 59~89㎡, 총 1341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내달 GTX-A의 일부 노선이 개통되고, 9월에 GTX 서울역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건축 허가와 도심재개발, 철도 지하화 등 호재로 집주인들의 매매 희망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급매물은 실종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기 GTX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GTX-A노선을 기

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수서~동탄) 일부 구간을 내달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지만, 집주인들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급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전화가 늘었지만,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전주(-0.03%)와 같은 하락세를 보이며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단지

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에 포함으로 전환한 중구의 경우 0.0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거래가격(12억8000만원) 보다 2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2년 1월·17억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서울역센트럴자이와 함께 인근 아파트 3대장으로 불리는 ‘서울역한라비발디센트럴’에선 2021년 5월 이후 매매거래 사례가 없었다. ‘LIG서울역리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13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3년 10월·14억5000만원) 대비 6.97%(1억1000만원) 떨어진 가격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카드 News

### 하나카드

## 제8기 고객패널 발대 상품 체험·보완 개선

하나카드가 소비자 패널을 구축하고 개선 사항을 수집한다.

### ◆ 역대 최고 지원율 기록

하나카드는 제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객패널은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8기 패널을 맞이했다. 역대 가장 많은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심사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총 15명을 선정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 직업, 거주지를 다채롭게 선발했다. 이번 8기 고객패널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선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 자기소개를 하던 한 패널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업무를 바탕으로 하나카드의 앱·웹 등 디지털 채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여 손님 친화적인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패널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등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나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대식에서 고객패널들이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카드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공식 출범

## 프놈펜서 ‘KB프라삭은행’ 오픈 양종희 회장 “최고의 경험 선사”

KB프라삭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KB프라삭은행’의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랜드 오픈 행사는 두 개의 국가, 금융회사,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투 월드 인투 원(Two Worlds into One)’을 메인 테마로 개최됐다. 짜아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와 짜룽 보통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비투해 캄보디아 진출 한국계 기업 관계자와 KB프라삭은행 임직원 등 약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서영호 KB



국민은행은 캄보디아 4위 규모의 상업은행으로 190여 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5000여 명이 넘는 영업 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원가성 예금 확보와 QR 페이먼트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선두은행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KB의 선진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해 캄보디아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부장, 강남재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등 KB금융그룹의 주요 경영진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양 회장은 개회사에서 “캄보디아 내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상생과 공존

의 레시피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고 함께 성장하겠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캄보디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신한카드-롯데렌탈

## 전략적 제휴 맺고 대여시장 협업 확대

신한카드가 롯데렌탈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여 시장 협업을 통해 미래 수익 확보에 나선다.

### ◆ 금융·정비 협력 추진키로

신한카드는 롯데렌탈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롯데렌탈에서 카드 결제 및 금융 상품 이용 시, 신한카드를 통해 우선 진행한다. 각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렌터카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약으로 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가 확보되고, 금융 상품의 취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롯데렌탈이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신한카드 금융 상품 이용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신한금융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들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과 횟수에 따라 등급(골드, 실버, 브론즈)을 정하고, 등급별 포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참석해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의 브론즈 등급 임직원 총 47명의 지난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진 회장은 이들에게 상패와 함께 최대 500만원의 지정 단체 기부권을 수여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가운데)이 수상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